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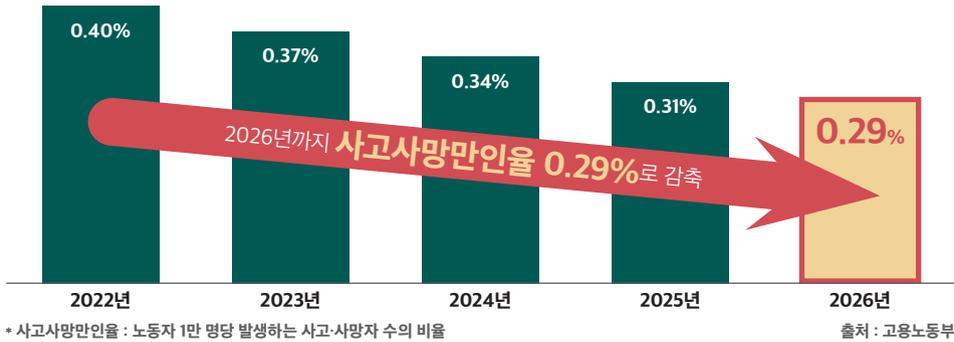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매년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이 기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전개된다.
올해부터는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확대·개편되면서
안전보건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드높일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정책 목표치



1960년대 경제성장의 이면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아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제1·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는 매년 평균 11%대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기준과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속 그야말로 쉼 없이 일을 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기업의 안전보건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산업안전보건 규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시작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1968년 '산업재해 예방주간' 행사로 처음 시작됐으며, 1998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올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7월 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 첫날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까지 킨텍스에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중점 추진과제(위험성평가, 스마트안전, 안전문화 확산)를 반영한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된다. 이후 전국 7개(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역에서 릴레이 개최 선언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된 세미나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